

'유니폼 논란' 프로스포츠 대참사 되나?

한전 강민웅 원정 경기 홈 유니폼 착용... KOVO, 긴급 상벌위원회 열고 징계 논의 키로

지난 14일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전에서의 '유니폼 논란'은 프로 스포츠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대형 참사로 기억될 것이다.

원인을 제공한 이는 한국전력의 주전 센터 강민웅이다. 원정 경기였음에도 홈 유니폼을 챙긴 것은 분명 선수의 잘못이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용인될 수 있다.

흔하지는 않지만 다른 유니폼을 입은 사례들은 다른 종목에서도 종종 있었다. 문제는 경기 감독관의 반응이다.

신영철 감독은 반팔 유니폼을 입은 다른 선수들과 달리 민소매 유니폼을 입은 강민웅의 출전 여부를 묻기 위해 박주점 경기 감독관을 찾아가자.

강민웅의 상태를 지켜본 박주점 경기 감독관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016~2017 V-리그 운영요강 제48조(유니폼 색상) 1항에 따르면 리베로를 제외한 한 팀의 모든 선수는 같은 색과 디자인의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규정대로라면 박주점 경기 감독관은 강민웅의 출전을 막았어야 옳다.

하지만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박주점 경기 감독관은 강민웅의 코트 진 입을 허용했다.

경기 감독관의 그릇된 판단 하나는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만들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수다.

해당 경기를 총괄하는 감독관의 승인까지 얻은 한국전력이 강민웅을 쓰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도 아니었다.

결국 경기는 대한항공이 14-12로 앞선 1세트 중반 중단됐다.

양팀 감독들은 20분 넘게 설전을 벌였다. 결과적으로는 대한항공 박기원 감독의 말이 옳았지만 감독관의 승인대로 움직였으니 억울하다는 한국전력 신영철 감독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었다.

사태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김형실 경기위원장과 서태원 심판위원장이 본부석으로 향

했다.

이들은 논리적으로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양측 벤치를 오가며 감독들을 달래느라 바빴다.

한쪽의 주장을 들은 뒤 다른 쪽으로 가 전해주시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두 번째 실수는 이후에 나왔다.

서태원 심판위원장은 두 감독들을 불러 모은 뒤 "양쪽 감독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심판 수장의 발언

으로 보기에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중계방송을 통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배구팬들은 수준 이하의 처사에 불만을 쏟아냈다.

올 시즌에는 유독 오심이 잦다.

프로 출범 10년이 지나면서 팬들과 경기 수준은 올라갔지만 경기 운영만큼은 제 자리를 맴도는 느낌이다.

KOVO는 오늘 긴급 상벌위원회를 열고 해당 당사자들의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LX사이클선수단, 필리핀 국제대회 출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이클선수단이 흑판이 혼란과 해외에서 그동안 쌓은 기량을 필리핀에서 펼친다.

LX사이클단은 오는 18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국제대회인 투르 드 필리핀에 작년 이어 LX단일팀으로 두 번째 출전한다.

장운호 감독이 이끄는 이번 선수단은 국가대표인 박상홍 선수를 포함해 박건우, 김군수, 차동현, 배대현 등이 출전한다.

투르 드 필리핀(Tour de Philippines)은 20개국 20개 팀 1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대륙 간 국제대회로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다수의 유명선수가 참가해 국제 사이클 연맹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대회다.

공사 코치이자 현재 국가대표 트레이너인 장진재 선수는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월드컵 팀에 합류해 인도 콜롬비아, 미국대회에 출전 중이며, 국가대표인 박상홍 선수는 이번 필리핀대회를 마치고 28일부터 바레인에서 열리는 2017 도로 아시아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편 작년 첫 출전인 투르 드 필리핀에서는 장진재 선수가 4구간(174km)에서 3위로 입상한 바 있다.

LX사이클단은 향후 4월 태국, 5월 인도네시아와 중국, 6월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인재용기자



U-20 조직위, 가수 NCT DREAM 홍보대사 임명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위원장 정몽규)가 가수 NCT DREAM을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의 조직위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조직위는 15일 신문로 축구회관 다목적회의실에서 대회의 오피셜 송을 가창할 NCT DREAM의 조직위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

축구스타 안정환, 박지성에게 이어 세 번째 홍보대사로 위촉된 NCT DREAM은 SM엔터테인먼트가 엑소 이후 4년 만에 데뷔시킨 신개념 그룹 NCT의 10대 청소년 연합팀이다.

곽영진 조직위 상근부위원장은 "FIFA U-20 월드컵과 오늘 홍보대사로 위촉된 NCT DREAM은 20세 이하이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스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면서 "NCT DREAM이 부를 경쾌한 오피셜 송이 여섯 명의 밝은 에너지를 잘 모아 우리 나라 곳곳에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했다.

NCT DREAM이 부른 대회의 오피셜 송은 다음달 15일 FIFA U-20 월드컵 주추첨 행사에서 공개된다.

/김민근기자

전북도청 빙상팀, 각종 대회 연이은 쾌거

전국동계체전·국제빙상연맹 쇼트트랙 월드컵 등 우수한 성과 거둬

전북도청 빙상팀의 2017년도 경기실적이 연초부터 예사롭지 않다.

올해 전국동계체전과 국제대회인 국제빙상연맹 쇼트트랙 월드컵,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전북의 저력을 과시했다.

지난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한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노아름, 황현선 선수가 첫째날 여자일반부 1500m 경기에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불체날 전지수 선수가 500m 경기에서

1위를 황현선 선수와 이은별 선수가 3000m 경기에서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으며, 마지막 날 단체전 계주에서도 전북도청팀이 금메달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독일에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ISU 쇼트트랙 5차 월드컵 대회에서는 노아름 선수가 1500m 경기에서 출전해 2위를 차지해 한국 여자선수 중 유일하게 메달을 획득했다.

10일부터 12일까지 벨라루스에서 열린 6차 대회에서는 노아름 선수가 1위(1500m)를 거머쥐었으며, 전북도

노아름, 이소연, 이은별 선수가 출전한 3000m 계주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지난해 5, 6차 월드컵 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전무한 점에 비해 볼 때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한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개최한 2017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는 황현선 선수가 3000m 계주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해 장래 유망한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대회의 성과는 전라북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각종 대회를 대비해 진지

훈련을 감행하는 등 도 빙상팀의 질적 부상으로 일궈낸 결과물이다.

특히 상반가부터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노아름 선수와 황현선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에 귀추가 주목된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을 넘어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빙상팀 선수들의 성적을 치하하며, "앞으로도 우수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다.

/인재용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